



백두대간 종주 제6보 (지리산, 덕유산 종주)

광전재료과 화공사무관 최월영

6월 7~8일(무박)
: 지리산 종주(성삼재-연하천-세석-장터목-천왕봉-중산리, 40km)

< 산행의 개인적인 새 역사를 만들면서 >

백두대간 자락을 더듬어 가기 시작한지 어느덧 6개월, 그 추운 겨울의 문턱을 넘어서고 나른한 봄날의 장막을 헤치며 여름을 맞이한다. 이번 여름은 여느 여름과는 다른 기분으로 맞이하면서 6월의 첫주 토요일 지리산 종주의 시작점이었던 성삼재 고개 주차장을 5개월 만에 다시 찾아 왔다. 겨울의 추위를 물리치고 자라나온 수목이 새벽 공기를 가르며 달려온 사천왕을 맞이하고 새로운 기분을 느끼며 오늘의 산행을 시작한다. 새벽 2시 50분 졸리운 눈을 비비며 버스 밖을 내려서니 오늘의 날씨는 5월 넷째주 폭풍우를 헤치고 지나온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싱그럽고 상쾌한 기분이 드는 맑은 날씨다. 노고단 산장을 향하여 새벽의 돌판을 헤매길 한시간 지나가고 돌과의 전쟁이 시작되었다. 돼지령, 임결령을 하늘 한번 땅 한번 쳐다보면서 그냥 지나치고 반야봉 삼거리에서 반야봉으로

전진할 것이냐 말 것이냐로 고민을 하다 가위바위보로 다음에 올라가기로 하고 아쉬운 마음을 달래며 삼도봉에 도착하니 하늘이 열리면서 여명이 우리를 반긴다. 삼도봉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면서 오늘도 무사히 재미있는 산행이 되기를 빌어본다.

기념 촬영 후 뱀사골 산장이 있는 화개재를 지나쳐 토끼봉을 향하여 고픈 배를 달래며 물 한 모금으로 주린 배를 채우고 혈떡이면서 명신봉을 향하여 열심히 올라간다. 시간이 얼마나 흘러갔는지 감이 잡히지 않는다. 아침은 연하천 산장에서 먹기로 하였으므로 무조건하고 연하천 산장까지는 가야 한다. 명신봉을 거쳐 가파른 계단을 조금 오르다 계속적으로 나무 계단을 내려가면 시야가 트이면서 산꾼들의 웃음소리가 넘쳐흐르는 연하천 산장이 나온다. 다른 때는 아침을 든든하게 먹어야 하다면서 된장국 · 개장국 · 라면 등을 준비하곤 하였지만 지리산 종주시간에 맞추기 위해 주먹밥과 단무지로 주린 배를 채우려고 하니 목이 메어 밥이 잘 넘어가지 않지만 억지로 물맛과 단무지 맛으로 밥을 간단하게 먹고 증명사진을 몇 장 찍고는 다음 고지를 향하여 출발한다. 아침 먹는 시간 30분 다른 때의 한시간 정도를 생각하면 정말 간단한 만찬

이다. 오늘은 주류도 없이 수도하는 기분으로 아침밥을 먹으려니 다른 구간에서 먹던 된장국·개장국·라면 생각이 절로 난다. 산행 시작 5시간이 지나 가면서 시계는 오전 7시 30분을 가리킨다. 1,500고지를 올라가고 내려가기를 계속하는 산행이지만 나무밀을 지나 가는 구간이 많아 삼림욕하는 기분으로 전진한다. 오전 8시 30분 이구대장이 나누어준 유인물의 산행 소요시간을 맞추어 보면서 벽소령대피소에서 가뺨 숨을 몰이쉬며 물 한 모금과 बे지밀 한 봉지를 마시고 무거워 지기 시작하는 다리를 재촉한다. 계속적인 돌길로 서서히 짜증이 나기 시작하지만 그 누구도 탓할 수 없는 셋겨간 흠을 아쉬워 해본다. 나무 그늘이 많다 하나 내리 쪼는 햇살에 타들어 가는 팔뚝을 무심히 바라보고 이마의 땀을 훔치면서 지나가는 돌밭길 저쪽에 선비샘이 우리를 반기고 다른 산악회에서 오신 고마운 산 여인이 건네주는 오이 한 조각으로 피곤을 조금은 날려 버리면서 칠전봉을 향하여 무의식의 세계에서 전진한다.

산행시간 8시간이 지나가면서 몸과 마음이 따로 놀기 시작한다. 영신봉을 올라 가기 위한 철제 계단과 토사 유출을 막기 위한 나무계단은 종주팀을 곤난의 길로 인도한다.

힘들게 계단을 올라서면 본격적으로 지리산의 절경이 눈에 들어오면서 산을 찾는 사람들은 이런 맛에 그렇게 거칠면서도 부드러운 산신령의 피부를 건드리면서 산행을 하는 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본다. 영신봉을 지나쳐 구릉을 조금 지나치면 세석산장의 검은 지붕 및 세석평전의 아름다운 모습이 시야에 들어오고 산사나이에게 어서 오라 손짓하면서 쉬어 가라고 말하는 것 같다. 사천왕중 지국천왕과 다문천왕이 뒤에

쳐져 오고 있어 그들을 기다리며 세석산장을 조금 벗어나 그들이 있는 돌계단을 차지하고 증장천왕이 가져온 냉맥주를 마시면서 지나온 길을 더듬어 본다. 아직 갈 길이 먼데 지국천왕이 세석산장에서 거림으로 하산하겠다는 것을 말리고 천천히 가다보면 고지는 점령된다고 꼬시면서 세석평전의 계단을 느릿느릿 올라가기 시작한다. 세석평전의 지겨운 돌계단 끝자락에는 촛대봉이 솟아 백두대간을 향한 사람들의 성지인 천왕봉이 저기 있음을 알려 준다. 촛대봉에서 바라보는 천왕봉은 자아를 구하는 사천왕에게 무엇인가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 같은 신비감을 느끼게 한다. 오늘의 마지막 구간을 향하여 전진하기를 1시간여 장터목 산장이 나오고 갑자기 배가 고프다는 신호를 보낸다. 허리띠에 붙어 있는 시계는 오후 12시 30분이 지나가고 있다. 장터목 산장 밖의 식탁 한 켠을 분양받아 밥상을 차리고 점심용 주먹밥을 단무지와 함께 맛있게 먹으면서 뒤에 오는 지국천왕과 다문천왕을 기다린다. 산행시간 10시간이 지나가고 나도 이제 나를 산의 일부분으로 느낄 수 있는 마음의 수련이 필요하다구나 하는 자각을 하여본다. 장터목 산장의 편리한 시설(특히 수세식화장실)을 감사한 마음으로 이용하고 오늘의 목표점인 천왕봉을 향하여 통천문을 지나 전진하기 시작한다. 장터목에서 천왕봉 오르는 길목은 초반부터 가파른 바위 길로 마지막 시험에 들게 한다. 올라야 한다는 일념으로 도착한 천왕봉! 표지판이 없으면 지리산의 여느 바위와 다름 없는 볼품 없는 모습이다. 내 이 모습 보려고 11시간 30분을 달려 여기에 왔냐고. 그래도 천왕봉 바위에 걸터앉아 시원한 바람으로 마음을 식이며 속세를 벗어난 땀을 털어 버리고 배 건너온 꼬냑으로 정상주를 마시면서 사

천왕들은 맘껏 웃어본다.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잘 걷고 앞으로도 잘 갈 것이라고.

천왕봉에 작별을 고하고 급경사 암릉지대를 내려가면서 이 구간은 겨울 등반은 정말 어렵겠구나 생각하며 음주로 조금은 풀린 눈을 부라리며 조심 조심 한 발 한 발 바위위로걸음을 옮긴다. 지겨운 하산 길 2시간여 시원한 물소리가 들리면서 오늘의 산행이 끝나감을 알려 준다. 승용차 주차장에 도착하니 버스 주차장까지는 30분 정도 더 내려 가야 한다는 식당아줌마의 말씀에 증장천왕이 무릎 연골 보호를 위하여 택시를 타야한다는 고집에 편안하게 우리를 태우고 갈 서울고려관광이 기다리는 중산리 버스 주차장에 무사히 도착한다. 중산리 주차장의 새로 지은 화장실은 시설이 정말 좋다. 내부에 세면대가 3개, 히터가 2대, 장애인용은 내부에 세면장 및 히터까지 설치되어 우리나라도 이전 화장실 문화가 선진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한다. 장애인용 화장실을 잠시 빌려 약식 샤워를 하고, 주차장내 음식점에서 오늘의 완주를 축하하는 막걸리파티를 마지막으로 오늘의 산행 일정을 마감한다. 무박 지리산 종주는 개인적인 산행의 새 역사를 기록하는 날로 기억하고 싶다.

□ 지리산은 왜 지리산인가?

지리산(智異山)을 글자대로 풀면 “지혜(智慧)로운 이인(異人)이 많은 산(山)”이라고 한다. 하지만 지리산은 그 너른 품만큼이나 이름도 많다. 지리산의 가장 오래된 이름은 쌍계사 진감선사대공탑비(국보 제47호)에 신라 때 최치원이 쓴 비문에 나오는 “智異山(지이산)이고, 백두산의 맥이 흘러왔다고 해서 “두류산(頭流山)”, 삼신산의 하나인 “방장산(方丈

山)” 혹은 현재의 음만 같은 “地理山” 등으로 불렀다. 또 불가에서는 문수보살의 도량이라 하여 문수사리(文殊師利)에서 유래한 “地利山(지리산)”, 그리고 이성계가 기도드릴 때 지리산에서만 소지가 타오르지 않았다고 해서 “불복산(不服山)”, 현대에 들어서는 빨치산의 소굴이라 하여 “적구산(赤狗山)”으로도 불렀다.

요즘 쓰이는 이름은 한자음으로는 “지이산”인데도 “지리산”으로 읽는다. 그 까닭은 “두루 넓고 크다”는 순수 우리말 “둘러·두루·두리”가 “드리·디리”로 간이화(簡易化)되었고, 다시 구개음화현상에 의해 “지리”로 변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자는 “智利·地利·智異” 등이 혼용되다가, 후에 불교의 영향을 받아 현재의 “智異”로 굳어졌다고 한다. 이 때문에 지리산으로 읽으면서도 한자로는 “智異山”이라 쓰게 되었다.

□ 낙남정맥이 갈리는 영신봉

지리산 세석평전을 굽어보며 솟아 있는 영신봉(迎新峰·1,652m)은 낙남정맥의 분기점이 되는 봉우리다. 이 영신봉에서 시작해 김해 낙동강까지 뻗어내린 낙남정맥은 남녘의 내륙지방과 해안지방을 갈라 기후와 문화 등을 구분해놓은 산줄기다. 300~800m의 높고 낮은 산등성으로 이어지는 낙남정맥의 북쪽에는 대부분 낙동강이 흐르고, 영신봉에서 옥산에 이르는 짧은 구간은 서쪽에 섬진강을 두었고, 동쪽으로 뻗을 때는 남쪽에 바다를 거느리고 있다. 이 산줄기는 마산의 무학산(舞鶴山·767m), 김해의 신어산(神魚山·630m)을 지난 뒤 낙동강 하구에서 그 끝을 맺는다.

6월 21~22일(무박)

: 육십령-할미봉-남덕유산-무룡산-동엽령-지봉-
빼재, 39km 14시간)

< 아직도 산을 가볍게 여기다니, 사천왕
이구대장 배반 >

육십령에 도착하니 파란 하늘은 없고 안개비가 육
십령 휴게소 도로 위를 적시고 있다.

월요일부터 6월 장마가 시작될 것이라는 일기예보
만 착실하게 믿고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관촬
우의는 준비하였으므로 느긋한 마음으로 안개비를 뚫
고 산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육십령 고개 대간 마루금
입구를 가로 막고 있는 통나무 울타리는 오늘의 산행
이 만만치 아니할 것이라는 것을 알려 주는 것 같아
긴장이 된다. 통나무 울타리를 빠져나가 안개속을 앞
사람의 궁둥이만 보면서 할미봉(1,026m)를 향하여 느
릿느릿 움직이기 시작한다. 산행 시작 1시간여 할미
봉을 지나치다 단독 대간종주자의 텐트를 보고는 나
도 저렇게 단독종주를 한번 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다.

할미봉을 지나면서 맞이하는 새벽의 암릉은 정말
싫다. 암릉을 지나면 그때부터는 계속 오르막길로 어
디인지도 모르고 무작정 안개비에 젖어 가는 바지 가
랑이를 부여잡고 가동하기를 2시간 30분이 지나면서
눈앞에 장수덕유산이 보이고 몸과 옷은 땀과 안개비
로 완전히 젖어 버렸다. 우선 장수덕유산 목전에서 지
국천왕과 다문천왕을 기다리지만 증장천왕은 앞으로
치고 나가 어디로 갔는지도 보이지 않으므로 막간을
이용하여 목을 우선 축이니 새벽에 마시는 감로수에
새로운 힘이 솟는다. 물의 고마움을 다시 한번 느끼는

순간.

지국천왕과 다문천왕을 이끌고 장수적유산에 무사
히 도착하니 저 멀리 헬기장에 증장천왕이 버티고 서
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에 안심하고 증명사진을 찍
고는 남덕유산을 향하여 가파른 철 계단을 지나고 잡
목 숲을 지난다. 남덕유산에서 아침을 먹기로 하고 부
지런히 발길을 움직여 정상에 도착하니 천안 탐이 우
리를 맞이하면서 정상주로 막걸리를 권하니 그 맛이
구름 위에서 먹는 신선주 맛이다. 이제 안개비가 그치
고 발아래 안개가 계곡을 돌아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장관을 이룬다. 남덕유산의 정기를 가슴에 안고 조금
아래 공터에서 식당을 차리고 거인산악회 아침 베이
스캅프라 칭하면서 후발대에게 배낭을 두고 남덕유산
정상을 갔다 오도록 인도해주시 서로가 기분이 좋아
진다. 땀과 안개비로 젖은 몸을 위해 아침 만찬을 즐
겁게 먹고 다음 고지를 향하여 사천왕이 선발대로 후
미를 인도한다.

남덕유산을 지나니 바위는 없어지고 양분 많은 점
은 흙의 촉감이 발걸음을 한결 가볍게 만든다. 지리산
의 돌길하고는 완전히 반대인 등산로 상태에 마음은
한결 가볍다.

삿갓봉을 스쳐가는 1,340m 고지를 지나 전진하길
3시간여 무룡산이 우리를 반긴다. 무룡산(1,492m)에
서 정상주로 시원한 맥주를 한잔하고 숨 한번 돌리고
부지런히 고개길을 오르락 내리락 하다 보니 동엽령
에 도착하다. 분명히 오늘의 하산길은 동엽령 삼거리
라고 하였는 데 동엽령으로 사람들이 올라오고 있다.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동엽령 삼거리에 도착하니 거인
산악회 장총무가 동엽령삼거리는 휴식년제로 하산하
기가 힘들다고 하면서 우선 도착한 사람은 길을 잘

찾아 하산하기를 주의를 준다. 현재시간 12시를 가리키고 여기서 하산하기에는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에 사천왕은 이구대장님을 배반하기로 한다. 다음 7월12일 산행구간인 동엽령삼거리에서 빼재까지를 오늘 종주하기로 의견을 일치시키고 계속 전진한다는 것을 장총무에게 알린 후 하산 길을 접어두고 다음 구간으로 전진한다. 이제부터는 사천왕의 책임 하에 자율 종주를 시작한다고 생각하니 긴장과 책임감으로 머리가 무겁다. 허지만 이왕 벌어진 일이고 체력과 마음을 시험하는 구간으로 생각하고 부지런히 갈릴길인 백암봉을 찾기 위하여 발걸음을 재촉한다. 동엽령삼거리에서 백암봉까지는 30분이라고 지도상에 명기되어 있어 중간에 지나가는 산나그네에게 물어 보니 20분 정도 더 올라가야 백암봉 표지판이 있다고 가르쳐 준다. 지금까지 대간종주중 지도사의 표기보다 늦게 걸린 구간은 처음인 것 같다. 이상한 일이고 요상한 일이다. 다음에 다시 오면 확인해 보리라. 백암봉을 힘겹게 올라서니 일반 등산객들로 왁자지껄이다. 백암봉은 덕유산 향적봉을 올라가는 길목으로 모든 등산객들이 쉬어 가는 곳으로 저 멀리 향적봉이 우리를 오라 하지만 향적봉은 대간구간에서 벗어나 있으므로 다음을 기약한다. 백암봉에서 다음 구간을 위한 체력 보강을 위해 가져온 비상식량(맥주, 참외, 김밥 등)으로 점심을 먹고 기수를 오른쪽으로 틀어 황경재를 향하여 걸음을 옮긴다. 여기서 부터는 오늘의 종점인 신평령 팻말이 나타 나기 시작한다. 송계사 삼거리 갈림길 까지 급경사 길을 내려 서면서 지국천왕과 다문천왕이 잠이 온다고 한다. 점심때 먹은 맥주 기운이 피곤한 천왕을 잠들게 한다고 하면서 그래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는 전진한다. 산행 시간 12시간이 지나 가고

무의식의 상태에 돌입하면서 이제 꼬리표도 잘 보이지 않는 상태다. 송계사로 내려 가는 월음령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지봉으로 향한다. 지봉의 팻말에서 신평령 6.6 km가 보이기 시작하면서 마음이 급해진다. 하늘에서는 천둥이 치고 스산한 바람이 불면서 금방이라도 비가 올 것 같다. 사천왕의 배반을 하늘이 벌 주려는 것 같아 어찌 등어리로 시원한 기분이 지나간다. 오늘은 기다려 주는 버스도 없으니 우선 무주택시에 전화를 걸어 오후 5시30분까지 신평령휴게소에 올 것을 예약한다. 금방이라도 비가 내릴 것 같아 최대한의 속력으로 전진해 보지만 사천왕들의 신체에 이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허벅지 또는 겨드랑이에 피멍이 든 사람, 무릎 통증이 나타나는 사람 등 마지막 산행에 나타나는 고개 마루는 더욱 사천왕 들을 괴롭힌다. 마지막 구간의 조그만 봉우리의 연속에 모두 짜증이 나고 피곤이 겹치면서 산행을 힘들게 하고 산을 가볍게 여긴 벌을 받는다. 산행시간 14시간이 지나고 신평령 휴게소에 도착하니 17시30분. 택시 기사분께서 시원한 식수를 권하신다. 기사분께 부탁하여 사천왕은 개울가에서 몸을 씻어면서 오늘의 피로를 풀고 영동역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면서 대간종주의 새로운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날로 기록한다. 이구대장님 죄송합니다. 7월 12일에는 사천왕을 보지 못하더라도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8월23일에 뵈겠습니다.

□ 크고 넓은 덕유산

전북 무주와 장수, 경북 거창과 함양에 걸쳐 있는 덕유산(德裕山 · 1,614m)은 넓고 큰산으로 덕유산의 한자 이름을 풀면 "크고 넉넉한 산" 이 된다. 이름의 유래는 임진왜란 등의 난리를 겪을 때 백성들이 산속으로 숨어들면 적군이 찾지 못했다는 데서

덕이 큰 산'이라는 뜻의 덕유산이라 부르게 되었다는 얘기도 있다.

기록에 덕유산이란 이름이 처음으로 나타난 때는 15세기 말의 <신증동국여지승람>이다. 또 이중환의 <택리지>에도 덕유산이라 해놓고 '흙산인데 구천동(九泉洞)이 있고, 천석이 깊숙하다'라고 쓰여 있다.

덕유산 주봉인 향적봉(1,614m)에서 남덕유산(1,507m)에 이르는 17km쯤 되는 주릉에 중봉, 무룡산, 삿갓봉 등 높은 봉우리들이 연달아 솟아있고, 덕유평전 등 널널한 초원이 펼쳐져 있어 장쾌함이 그만이다.

□ 남덕유산 · 장수덕유산

남덕유산은 거창군 북상면 월성리, 함양군 서상면 상남리, 전북 장수군 계북면을 경계 지으며 솟아 있다. 옛날엔 봉황산, 황봉으로 불렸다. 봉우리는 허봉, 중봉, 상봉으로 나뉘는데, 그중 동봉이 상봉이며,

서봉은 장수덕유산이라 부른다. 남덕유산은 북덕유산과는 달리 날카롭게 솟은 산이다.

남덕유산은 두 개의 발원샘을 갖고 있다. 남쪽 기슭의 참샘은 진주 남강으로 흐르는 첫 물길이며, 북쪽 바른골과 삿갓골샘은 황강의 첫 물길이다.

□ 구천동의 유래

예전 무주 구천동은 북한의 '삼수갑산'과 더불어 심산유곡의 대명사로 쓰였다.

갈천 임훈의 '등덕유산 향적봉기'에 구천동을 불공을 이룬자 9천명이 머문 둔소(屯所)라는 뜻에서 구천둔이라 한다고 했다. 윤증의 '유광려산행기'에서 처음으로 동(洞)자를 붙여 썼고, 박문수 어사가 천(千)씨 부자와 관련해 구천동민을 신도로 다스렸다는 얘기가 전한다. 또 구(具)씨와 천(千)씨가 많이 산다고 해서 구천동(具千洞)이라 한다고 하는 말도 있다.

